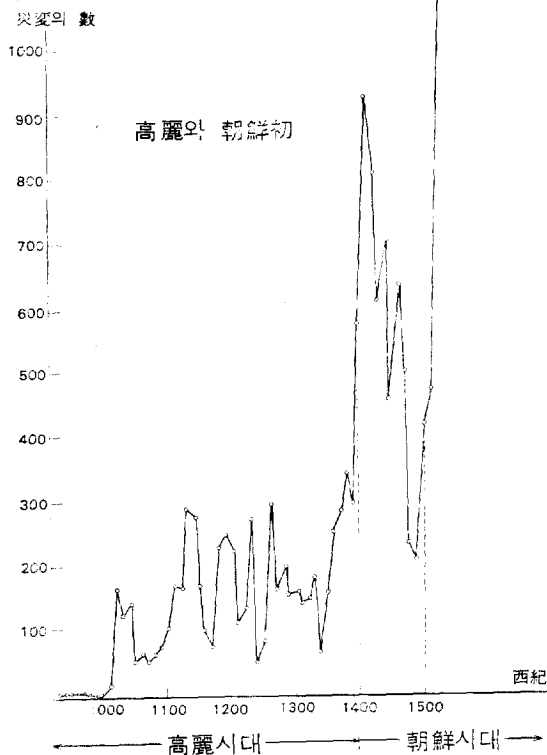


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災變은 王의 求言과 臣下의 進言의 계기로써 가장 중요한 社會的(政治的)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災變기록의 頻度는 다름아닌 言論活動의 計數쯤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災變 기록의 원래 목적이 과학적 관측기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오늘날 科學者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歷史學的 配慮가 필요하다.



1. 資料

三國史記: 1,000個
高麗史: 6,500
實錄: 8,000 (1392~1510年間)

承政院日記: 仁祖 이후 實錄보다 상세

燃藜室記述: 1656個 (1392~1719)

增補文獻備考: 三國史記, 高麗史기록은 그대로이나
朝鮮朝의 것은 아주 貧弱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 위와 거의 같음 (1917)

朝鮮의 災害 (1928):

2. 研究현황

A. 科學的 資料—— 활발히 進行되고 있음

太陽活動과 米作, 洪水의 周期, 新星, 流星雨 등등

B. 人類學的 관심—— 활발

迷信(?)의 또는 宗教的인 災變觀의 연구는 아직도 많이 연구할 여지가 있음. 歷史 연구에도 크게 도움될 것.

C. 災變은 政治思想의 표현이다——(董仲舒)

顧頤剛 등——古代 宰相 등 災變으로 免職

W. Ebrhard——史家들의 造作이다.

H. Bielenstein——當時 士大夫들의 人氣度 반영이다. 漢代의 災變 연구만 있고 그 후는 아직 未踏

3. A. 朝鮮朝의 災變기록: Eberhard, Bielenstein 모두 適當치 않음

① 造作흔적 없다: 承政院日記와 비교

자료 자체의 모순 비교

② 人氣度에 오히려 反比例하는 듯:

모범적 王代에 더 많은 기록

B. 災變기록은 言論活動에 비례한다.

〈王과 臣사이〉
〈臣과 臣사이〉 不調和가 있을 때 기록 증가

第15回「全國歷史學大會」

科學史部會

1977. 5. 28

麗初의 曆과 年號

韓國外國語大 朴 星 來

10세기에 高麗人들이 독자적인 年號를 사용했다는 것은 史家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太祖 王建은 麗朝의 창건과 함께 天授라는 年號를 채택했고(918년) 그 뒤 4代 光宗은 即位와 함께 光德이란 年號들(950), 그리고 그 11년에는 또 峻豐이란 年號를(960)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峻豐에 대해서는 그것이 高麗 독자의 年號냐, 아니면 避諱年號냐 하는 데에 異見도 없지 않았다. 또 妙淸(1135年)이나 李澄玉(1453) 같이 稱王建元을 피한 반란도 있었다.

그러나 麗初 이후 近代化의 물결 속에 1896년 建陽이라는 年號를 채택하기까지 거의 1천년간 우리나라 독자의 公年號는 사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독자적인 年號를 갖는다는 것은 自主獨立精神의 表現으로 받아들여져 우리 역사의 서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왔다. 그러나 麗初의 年號 사용은 과연 獨立정신의 表現이라고 보아서 좋을가?

年號란 기원전 140年 漢武帝의 “建元”으로부터 시작되어 中國에서는 같은 皇帝 在世中에도 여러차례 그 이름을 바꾸는 일이 많았다. 實用的인 면에서 볼 때 年號란 수백년 또는 그 이상 계속되는 歷史의 흐름을

測定할 필요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西紀와 같이 그것은 흐르는 時間의 한 조각 한 조각에 붙이는 이름들이다.

그러면 이것은 보다 더 기본적인 時間의 측정을 위한 曆의 문제와는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

年號가 史家の 관심을 모은 것과는 달리 麗初의 曆에 대해서는 高麗史 曆志 내용 이상은 알려져 있지 않다. 高麗史 曆志에 의하면 高麗人들은 822년에 만들어진 唐의 宣明曆을 開國初부터 쓰기 시작하여 忠宣王代에 元曆 授時曆을 받아들일 때까지 宣明曆만을 썼다고 한다. 이 기록은 또한 中國에서는 宣明曆 이후 22회의 改曆이 있었고 宣明曆의 계속 사용은 많은 제산상의 어긋남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高麗는 改曆을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高麗史 曆志의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麗初의 曆의 발달은 어떠했으며 그것은 당시의 年號 사용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첫째, 宣明曆이 거의 4백년간 사용되었다는 高麗史 기록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曆의 부정확성을 증가했다는 투의 高麗史 해석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宣明曆에서 授時曆까지 22회의 改曆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中國의 政權交替에 말미암은 것이었지 기술상의 改良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中國曆法の 전문가 蔣內清은 말하고 있다.

둘째, 中國에서의 改曆내용은 高麗人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太祖 16年(933) 後唐은 사절을 보내 冊王·賜曆하고 그로부터 高麗는 天授를 폐기하고 後唐年號를 쓰기 시작했다. 이때 後唐에서 쓰고 있던 曆法은 崇玄曆이었으므로 이때 高麗가 받은 것도 宣明이 아니라 崇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뒤에도 여러 차례 中國曆法이 들어온 기록이 있고 뿐만 아니라 中國이 高麗國王을 冊封한 때에는 그때마다 賜曆도 수반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셋째, 이들 수입된 中國曆들은 高麗人에 의해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初期에는 무조건 中國曆을 사용했던 데 비해 11세기부터는 曆計算을 麗人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증거로는 우선 中國曆과 高麗曆의 朔國表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殷墟學會「韓國史」年表附 참조) 麗初 1백년 가량 동안 高麗史의 日辰은 中國歷史의 日辰과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1022년 2월에 처음으로 두 나라의 曆은 干支가 틀리고 그후에도 1025, 1032, 1040, 1041, 1049, 1055, 1059, 1065, 1079, 1096 등등의 干支를 볼 수 있다. 이 의미는 분명하다. 적어도 1022년

부터는 麗人들은 獨自의 曆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 이때 이들이 이 獨自의 曆을 만드는 데 쓴 基本常數가 宣明曆의 그것이었으리라. 高麗人들은 11세기 초까지 曆法을 상당수준까지 발달시킨 것 같고 이것은 天文관측에서도 같은 정도의 발달을 가져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史에 기록된 天災地變의 기록은 11세기 초부터 급증하는데 이것은 그 결과일 것이다.

1019년에는 高麗史에서는 처음으로 구름 때문에 日食豫報가 맞는지 여부를 관측할 수 없었다는 記事가 보인다. 1030년에는 高麗曆과 中國曆이 서로 틀리고 예보된 月食이 안 나타나 朝廷의 논의거리가 된 일도 있다. 1048년 日本에서는 改曆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채용하려던 후보는 다름아닌 宋曆이나 高麗曆이었다. 이들은 모두 麗人들이 독자적인 天文·曆法の 발전에 만족할 만한 경지에 이르고 있었음을 뜻한다. 1081년 麗人들은 宋曆에 따라 약간의 曆法修正을 논의한 일이 있으나 결국 반대의 소리가 더 높았던 것 같다. 또 1052년에는 十精曆·七曉曆·見行曆·循甲曆·太一曆 등 다섯가지 曆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아마 이중 한가지는 12세기 중국 書目에 수록된 「高麗曆」이란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들 모두가 麗朝의 天文·曆法이 11세기에 크게 발달했음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曆의 발달과정은 麗初의 年號 사용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 麗初의 年號 사용과 당시의 中國과의 使臣교환관계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은 도표를 만들 수 있다.

① 期——太祖는 建國과 함께 年號를 天授라 하고 그후 여러차례 中國에 사신을 보내던 끝에 932年 後唐에 보낸 사신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 다음해인 933年 後唐은 使臣을 보내 太祖를 冊封, 賜曆하고 그로부터 高麗는 독자적 年號인 天授를 폐하고 後唐年號를 쓰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中國에 사신을 보낸 것은 高麗의 자발적 행동이지 누구도 壓力을 가한 것이 아니며 冊封을 받으려는 것은 高麗側의 희망이었지 中國側의 壓力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또한 고려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後三國 모두가 다투어 中國의 冊封을 희망하여 많은 사신을 보냈다는 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④ 期——第四代 光宗은 즉위와 함께 光德이라는 年號를 쓰기 시작했으나 952年 後周에 보낸 사신이 성공, 다음 해에 後周가 遣使冊王하자 光德을 폐하고 後周年號를 쓰기 시작한다.

이미 史學者들이 지적해 온 것처럼 고려가 後周의 冊王使臣이 오기 전부터 後周 年號로 바꿨다는 高麗

史의 기록은 錯簡임이 분명하다. 後周年號는 光德4年 冊王 이후가 됨은 물론이다. 여기에서도 ①期나 마찬가지로 中國年號의 사용은 高麗가 願해서 비로소 기록된 것이었고 어떤 政治的 壓力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⑤ 期——이때의 峻豐이 避諱年號라는 今西龍의 주장은 이미 秋浦秀雄, 柳洪烈, 李丙燾 諸氏에 의해 부정돼 왔다. 筆者의 方式으로 보아도 峻豐은 光宗 獨자의 年號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다만 峻豐이 光宗시대의 自主獨立精神과 관련있다는 諸氏의 해석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미 天授·光德때 본 바와 같이 中國에서 새 나라가 들어서고 그 나라의 冊王 사신이 와서 麗王을 冊王할 때까지는 高麗는 어쩔 수 없는 臨機應變으로 독자적인 年號를 만들어 쓰다가 962년에 보낸 遣宋사절이 다음해에 冊王使를 불러 오자 즉각 峻豐을 버리고 宋年號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公式的으로 사용하는 曆의 종류에 따라 그 나라의 年號를 사용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公式賜曆이 없었던 中國王朝交替期에는 冊王·賜曆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高麗 독자적 年號를 썼던 것일 뿐이다.

648년 唐太宗이 新羅사신에게 왜 新羅는 唐에 事大 하면서도 獨自의 年號를 쓰느냐고 묻자, 신라사신은 願曆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三國史記는 전하고 있다. 年號 사용은 願曆에 따라 좌우된 것이었지 자주독립정신과는 無關한 것이었다.

② 期——936년 後唐이 後晉과 교체되자 高麗는 다음해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高麗史는 938년부터 後晉年號를 쓰기 시작했고 後晉의 사신이 온 것은 그 다음해라고 傳하고 있다. 이것 역시 錯簡임이 분명하다. 後晉年號 사용은 後晉의 冊王使臣이 온 뒤에야 하므로 두가지 記事는 모두 938년이나 939년으로 몰아 놓아야 할 것이었다. 또 여기에는 1~2년 정도 高麗 獨자의 年號를 썼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독자적 年號 없이 견딜 수 있었을 법도 하다.

③ 期——947년 건국한 後漢은 그 다음해에서야 建元한 것으로 되어 있고 高麗史는 이때부터 (948) 後漢年號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948년에 後漢의 使臣이 高麗에 왔다는 기사가 高麗史에 누락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 경우엔 後晉과 後漢 교체기가 너무 짧아 高麗 독자적 年號의 필요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963년 宋年號를 채용한 이후 고려는 거란 또는 宋의 年號를 번갈아 쓰거나 또는 併用하여 그때 그때의 外交의 형편에 대응해 왔다. 그리고 曆의 발달은 충분히

이루어져 中國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되어 갔다.

中國, 韓國의 政治的 안정과 高麗의 天文·曆學의 발달은 그후 年號와 曆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 曆은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것을 쓰면서 年號는 중국의 것을 따르는 方式이 되어 갔다.

西紀	高麗王代	高麗年號	中國年號	中國使臣來麗	冊封麗王	高麗遣使
918	太祖一	天授1				
919	二	2				
920	三	3				
921	四	4				
922	五	5				
923	六	6				
924	·	7				
925	·	8				
926	·	9				
927	·	10				
928	·	11				
929	·	12				
930	·	13				
931	·	14				
932	·	15				
933	·	16	後唐年號	後唐冊王		
934	·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					
951	·					
952	·					
953	·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					
961	·					
962	·					
963	·					
964	·					
965	·					
966	·					
967	·					
968	·					
969	·					
970	·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					

韓國曆書의 變遷

仁荷大 李 殷 晟

百濟가 일본에게 曆法을 傳하였다는 사실은 文獻備考와 日本書紀에 실려 있다. 그러나 當時 쓰였던 元嘉